

시월 월간보코서

# 어이스크림 4

두 번째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 제목을 썼습니다.



# SL4 10월의 기록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LGH 봉사활동(Painting) •Children Club •한국어 교실	2 •모라투와Y 미술대회 일일스텝	3 •대청소
4 •LGH 봉사활동(Painting)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모라투와Y 글쓰기 대회 일일스텝 •RCM	5 •LGH 봉사활동(Painting) •나무 울타리 보수 작업	6	7	8	9 •댄싱 Class •태권도Class	10 •대청소
<p>첫 번째 스리랑카 여행 ~♥ 자세한 내용은 ‘여행 이야기’를 참고하세요!!</p>						
11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RaonAtti Committee Meeting)	12 •월간 보고서 한국 발송 •Sagari, Hiruni 병원	13 •Herbal Drink 나누기 •LGH 봉사활동(Painting) •Youth Club	14 •LGH 봉사활동(Painting) •싱할라어 Class	15 •LGH 봉사활동(Painting) •Children Club •한국어 교실	16 •댄싱 Class •태권도Class •모라투와Y 음악회 ‘VOICE’ 일일스텝@콜롬보	17 •대청소
18 •벽화 디자인 초안 작업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19 •Elder home 2곳 방문 •RCM	20 •Herbal Drink 나누기 •Negombo YMCA 방문	21 •나무 울타리 만들기 시작	22 •Poya Day (보름달 뜨면 쉬는 날) •사찰 방문	23 •댄싱 Class •태권도Class •모터쇼 관람 @콜롬보	24 •대청소
25 •Digrolla Garden 수업 보조 •RCM	26 •Elder home 정원 정리 작업	27 •Herbal Drink 나누기 •나무 울타리 만들기 •Youth Club	28 •나무 울타리 만들기	29 •‘Smile Moratuwa’ 프로젝트 사전조사 •Children Club •한국어 교실	30 •댄싱 Class •태권도Class •Y’s men 파티 참석@콜롬보	31 •대청소

# ♪♪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SL4와 떠나는 스리랑카 투어 제1탄\_Kandy, Galaha, Sigiriya, Dambulla.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문구처럼,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 4기(이하 SL4)는 떠났다. 어디로? 스리랑카 곳곳으로! 설렘과 흥분에 늦잠으로 시작한 '사마웬느(미안합니다)' 여행, 소중한 인연을 맺은 '아유보완(안녕하세요)' 여행, 매일 밤 나눴던 Lion 맥주 한 잔이 더 없이 행복했던 '이스뚜띠(고맙습니다)' 여행, 참된 마음의 'Godak Fit'이 난무했던 '사뚜두이(행복합니다)' 여행, SL4가 스리랑카 전통 음식에 완전히 적응하는 기회가 된 첫 여행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 ♥ 두둥, 하룻날(06/10/2010)

### - Elephant orphanage in Pinnawala

굉장한 규모의 코끼리 동물원에 갔다.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코끼리로 유명한 줄 알았는데, 스리랑카에도 많은 코끼리들이 살고 있었다. 코끼리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 우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그날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코끼리들은 오히려 시원한 빗줄기에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다.

'어린이 강민지'는 육중한 몸을 가진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않는지 궁금했었다. 코끼리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은 그가 한 번만 힘을 주면 쉽게 풀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어린이 강민지'의 이런 의문은 언젠가 읽은 책에서 해결됐다. 코끼리들은 아기 코끼리일 때 탈출을 시도하지만 쇠사슬을 끊을 만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좌절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코끼리들은 은연중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이쳐도 도망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코끼리들이



▶ 원로위원 Mr.니할과 함께한 SL4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을 때조차 아기 코끼리일 때의 경험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동물원의 코끼리'로 일생을 사는 것이다.

그날 동물원에서 코끼리들의 목욕을 지켜보면서, 코끼리들의 식사를 지켜보면서 가진 생각은 하나였다. '그들이 동물원의 코끼리이든, 야생의 코끼리이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그들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기쁨이면 바랄 것이 없겠다.

▶ (좌)코끼리 동종이 박물관에서 (우)맛나게 식사 중인 코끼리



- Sri Dalada Maligawa, Peradeniya Garden in Kandy



고산지대에 위치한 캔디(Kandy)는 과거 스리랑카의 수도였다. 수도였던 당시에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영향으로 도시 전체가 유럽풍의 느낌이 강했다.

처음으로 방문했던 'Sri Dalada Maligawa'는 매우 유명한 사찰이다. 종교를 떠나서 매우 엄숙하고 경건한 장소이기 때문에 복장부터 태도까지 완벽한 점점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한 가지 유감스러웠던 것은 방문객 모두 무료 입장이던 정책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외국인들에게는 고액의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아무지개 곳곳을 둘러보리라 결의하며 씩씩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사찰은 규모도 크지만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인인 석가모니의 '유골(치아)'이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사찰 내 도서관에는 최소 천 년된 장서들이 있었고, 박물관에서는 금으로 만들어진 각종 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건물의 천장은 온통 금으로 도배돼 있었는데, 사찰을 건축하던 당시의 염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사실 몇 년 전, 테러리스트들이 사찰의 상당 부분을 파괴한 일이 있었다.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져 현재는 초기 모습을 거의 회복한 상태였다. 우리나라도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소중한 문화재를 잃은 사례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유적과 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그대로 온전히 후세에게 전해줘야 할 것들이다.



다양한 나무들과 꽃들을 볼 수 있었던 'Peradeniya Garden'에서는 울창한 식물들 사이에서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셨다. SL4, 하늘 높이 자란 나무들이 만들어 낸 가로수 길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외치다. "왕따시 하이여(아자)!"

▶(위)Sri Dalada Maligawa 사찰 내부.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예를 갖춘다. (좌)캔디 시내 전경 (우)사찰 앞에 선 SL4 (아래)Peradeniya Garden의 다섯 송이 꽃들.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 두둥, 이튿날(07/10/2010)

- Gamini Sevana in Galaha

모라투와 YMCA 원로 위원 니할(Nihal)의 오랜 벗, 란지트(Lanjith) 씨가 운영하는 유기 농업(organic farming) 농장을 견학했다. 란지트 씨는 스리랑카 유기 농업의 대부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새로운 농법을 익히기 위해 국제회의에도 부지런히 참석하는 분이다. 학회 참석차 우리나라를 두 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고, 같은 이유로 내년에 우리나라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이다.

실제로 그의 농장에서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유기 비료를 써서 재배하는 무공해 채소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식사 때마다 무공해 채소들로 만든 왕따시 맛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 SL4의 손과 입을 바쁘게 했다는 후문이다. 참고로, 11월부터 모라투와 YMCA에는 란지트 씨의 농법을 구현한 '라온아띠 정원'이 가꿔질 예정이다.

유기 농업 농장을 둘러보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농업 분야가 나와 무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이다. 지금까지 농업을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했었다. 생각해 보면, 농업은 한 세대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다음 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여겼던 나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다.

▶(위)란지트 씨와 맛난 식사를 하는 루와니 (아래)유기 농법으로 재배되는 채소들



♥ 두둥, 사흘날(08/10/2010)

- Sigiriya



스리랑카에 오기 전, 사진으로 먼저 보고 감탄사를 연발하던 시기리야(Sigiriya)에 SL4가 뒀다! 장엄한 절벽이 우뚝 솟은 시기리야는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가 과연 저곳을 오를 수 있을까?'란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시기리야는 카샤파왕(king of Kashapa)의 집권기에 최대의 부흥기를 맞았는데, 카샤파왕 한 명이 오백 명의 여성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험한 절벽을 오르는 내내 '나쁜 남자'를 입에 달고 있었다. 동시에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꼈다. 의자왕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의자왕은 삼천 명의 궁녀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카샤파왕은 오백 명의 여성들과 함께 했더니 그나마 나은 것일까? 아니다, 오십보백보다!

시기리야는 아래서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지만 위에서 내려보는 광경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상에 오르는 여정이 녹록치 않은데, 마치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는 기분이었다. 오를 때의 험난함과 달리, 정상의 평평한 대지에서 아무런 방해물도 없이 자연의 바람을 그대로 맞는 그 기분이란! 아마도 직접 만끽한 SL4만 알 수 있으리라.

▶(위)시기리야 정상에서 바라본 카샤파왕의 전용 수영장과 무도회장의 모습 (아래)"여기는 시기리야 정상,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 Rock & Golden Temple in Dambulla

'Rock & Golden Temple'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암벽에 위치한 사찰이다. 거대한 암벽과 맞물려 지어진 사찰의 내부에는 다양한 크기의 불상들이 있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암벽 틈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보호 벽까지 설치해 그 물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모아진 물을 매우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도 놀라웠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단순하게 넘기지 않고, 혹은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판단하기 앞서 자연이 주는 특별함을 간과하지 않는 것에서 이들의 굳건한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처음 만난 다름 속에서 익숙한 같음을 느낀다."는 다밋(Damith, 한국 이름: 정동민)의 말처럼, SL4는 스리랑카에서의 행복한 일상에서 더 행복한 일탈을 했다. 스리랑카에서 살기 시작한 한 달 즈음에 떠난 여행에서 SL4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모라투와=강민지 기자  
/smpkmj6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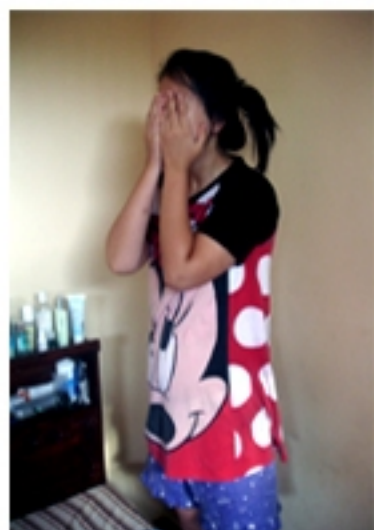


▶(좌)Golden Temple 입구 (우)Rock Temple 내부 불상들의 모습 (아래)Rock Temple 전경과 함께한 왕따시 멋진 루와니

# SL4의 24시

안녕하세요!! SL4의 나름 '리더' 다밧 입니다. 어느덧 스리랑카에서 두 달째 살아가고 있는 SL4...현지 적응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매일 매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모라투와 YMCA로 출근해서...오전 일과, 점심 먹고, 잠깐 쉬다가 오후 일과,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회의하고, 개인 시간 조금 보내고 나면 하루가 휙~. 매일 일기를 쓰지만, 벌써 11월이 왔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다들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4시간을 완전히 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SL4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 그럼 SL4가 어떻게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까요?!

AM 07:30 아침이 오는 소리에, 문득 잠에서 깨어...



AM 08:30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껏 사랑하기!!



AM 10:00 SL4!! 도대체 못 하는 게 뭘까요?! 알려주세요. 제발~ㅋㄷ



AM 11:30 창 밖엔 비가 내리고, SL4는 잠이 든다. 다들 허리를 곧추 세우고 오후를 준비하네.



PM 12:30 행복을 주는 스리랑카 커리 & 라이스. 위가 늘어나고 있어요.ㅋㄷ



PM 16:30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강가의 천사들.



PM 18:00 보람찬 하루를 보낸 SL4, 힘들지 않아요.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가는 길. 유후~



PM 19:00 **팍 찬 하루의 깨알 같은 '나의 시간. 나는 소중한니까요. :)**



PM 20:30 **오늘의 문을 닫고, 내일의 문을 여는 회의 시간.**



PM 22:00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LION Beer!!' 카~~~~**



\* 매일 낮잠을 자거나, 매일 맥주를 마시진 않습니다. 약간의 연출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SL4의 24시간!! 어떠신가요?! ㄱㄷ 저희는 이렇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 2개월을 살다보니 다들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한국에서는, 한 겨울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부의 상징이라고도 하죠?! 내년 2월, 기대하세요!! 진정한 부의 상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ㄱㄷㄱㄷ) 슬리퍼 모양처럼, 옷 모양처럼 타버린 피부빛이 걱정된다기 보다 오히려 현지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며 서로 좋아하다가도 우리가 또 언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겠냐며 다가오는 귀국 날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아..귀국 걱정은 내년 1월 호에서 할게요!! 벌써부터 걱정하고 싶진 않네요. ㄱㄷ

갑자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Children Club 친구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다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웬 서양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다섯 명이 밥을 먹다가 말고 동시에 외친 한 마디... "엇, 외국인이다." 이려고 아무렇지 않게 한참을 밥을 먹다가 생각해 보니 웃겨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인데, 외국인 보고 외국인이라니...허허허 ㄱㄷ

**SL4...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Friends of Asia가 되었나 봅니다. :)**

아이고..말이 길어졌네요. 'SL4의 24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2월호에서는 어떤 이야깃거리로 찾아 뵙게 될지 오히려 제가 더 기대되네요. 그럼 추운 한국에서 감기 조심하시구요, 저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러분의 퀴즈 정답 편지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아무도 안 보내 주시더라도...ㅠㄱㄷ). 그럼 매일 매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밋-



# ságári & Hiruni 활동 게시판

저희가 처음 이곳 스리랑카 모라투와에 왔을 때, 우리의 코디 sampath이 가장 먼저 설명해 준 것은 바로바로 ~ 길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이었습니다. 튼튼한 울타리도 있었지만, 몇개의 울타리는 아예 흔적조차 없이 박살 났고, 몇개는 나무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타리를 촘촘히 박아 놓았더라구요, 버스가 빨리 지나갈 때, 사람들이 기존울타리를 치고 지나갈 때 마다 마음을 졸이곤 했습니다. 나무도 공기를 마시면서 크게 자라야 사람들에게도 좋은 공기를 제공해 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찰나, 저희 팀원들은 의견을 모아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보드멤버들과의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 울타리 제작을 하고 싶다고 말이죠 ^^ 보드멤버분들께서 흔쾌히 OK! 를 외쳐주셔서 저희는 바로 울타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

## 급훈

“ 마음껏 사랑하자! ”



엄마 아빠 사랑해요!  
- 보람 -

주 번  
강 민지  
정 동민  
한 상진

2010년 10월 27일 ~ 11월 3일

저희 팀장인 다밋, 그리고 고락 라싸나이라고 늘 외치는 히루니, 우리의 코디 Sampath이 나무공장에 가서 대나무를 사왔습니다. 길이 별로 재서 잘라줄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긴 대나무를 사오셨더군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헐 하고 외쳤죠 ^^;;

우리가 이 긴 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화분울타리를 잘 만들수 있을 까 하고 말입니다.

대나무를 실은 트럭이 Y마당까지 들어오지 않고, Y 앞에 길가에 주차해 놓고 저희 다섯명이 힘을 모아 한개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힘 좋은 다밋과 스펀은 남자니깐 환손에 두개씩, 한번에 네개씩 옮겼죠. 하하.

Y 마당에 다 옮겨 놓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지 막막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역할분담을 했죠.

기존울타리보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리고 길이는 어느정도로 할지 등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1M 정도의 높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높이 1M 그리고 가운데는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도록 X자로대나무를 잘라 못을 박기로 결정!

줄자를 이용하여 긴 대나무를 1M 씩 재면서 틈을 가지고 자르는 일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틈 전문가를 고용, 전기톱을 이용하여 단숨에 우리가 원했던 길이로 잘랐습니다. 높이만 정해서 자르다 보니 가로길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 다시 줄자를 들고 길이를 재기 시작, 가로 X 자 길이를 재고 자르기를 반복,

어느새 대나무를 보니 처음 본 대나무의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너' 잘 지내니? 보고싶다. -...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어제에 이어 나무 울타리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르는 것을 다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못질은 어떻게 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나무들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생각에 열심히 못질을 했습니다. ^^ 대나무 두 개를 이어서 기둥을 완성하고, 이음새에 각목 두 개를 붙여 못질을 하였습니다. 각자 나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말이죠. 못질을 처음하는 팀원은 못이 점점 휘어지면서 두 개 박는 것이 기본이 되더라구요. ^^ 계속 하다보니 노하우가 생겼는지 못도 잘 들어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철사로 조이는 작업도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힘 조절을 못하면 끊어지곤 했지만요. 한 개씩, 울타리 네 개를 만들어 조립해 보니 우리의 첫 울타리가 완성되었어요, **까악!**

땀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들어간 우리의 첫 작품! 나름 뿌듯했습니다. 한 개를 만들고 나니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얼른 울타리를 다 만들어서 나무들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힘이 많이 들더라구요. ^^ 쉬엄쉬엄하면서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고 첫 박음질이 있던 날! 예상 외로 땅은 딱딱해서 바로 박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울타리를 박은 다음에 망치로 두들겼죠.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 아직 모든 나무들에게 우리의 땀과 열정이 들어간 울타리를 제공해 주진 못했지만, 아마 이 기사가 나갈 즈음이면 다 완성되어 있을 것 같네요. 참! 저희 스리랑카팀원들은 울타리 작업을 하면서 나름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 스푼은 못 박기의 달인, 사그리는 톱질의 달인, 루와니는 철사 감기의 달인, 히루니는 내조의 여왕!! 다들 나름 한 가지씩 재능을 발견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의 팀장 닷은 ..... 흠..... 다 잘해요. ㅎㅎ

자~아~ 지금까지 저희 SL4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봤어요.

다음 호는 어떤 기사로 만나볼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후훗. 그럼 그때까지 감기 조심하세요 ~!



# Hospital

9월 30일에 시작한 LGH(Lunawa Government Hospital)의 침대 및 의자 페인팅 작업이 10월 15일에 끝났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던 페이팅 작업이 다른 작업과 겹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길어져서 보름 동안의 작업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여자 병동과 남자 병동에 있는 침대와 의자의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새로 페인트칠을 했어요. 하지만 힘든 작업 속에서도 끼리예(밀크티) 한 잔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같았고, 매번 coooooooooooooooooo이~~ 스프라이트 에카이(하나)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BLA를 사오는 뽕뽕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이 그날의 가장 큰 낙이었어요.^^ 힘들었지만 깔끔하게 칠해진 침대와 의자를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마쳤습니다. 매번 Supun(한상진)만 찾는 간호사들과 싱할라어로만 의사소통하시는 의사선생님, 우리가 스리랑카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타밀 아저씨까지! 지난 15일동안 병원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것을 이제 막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 친구.....  
우점하! 보고싶다.  
-인지-  
PS. 하나 간사님  
라면 .고추장.된장.  
스팸.참치.짜바게티

208번 버스 정류장

아침에 Y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가기 위해 연장을 챙겨서 208번 버스를 탑니다. 자전거보다 느린 속도에서 걸어가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208번 버스 타는 이유는????!! 해안도로를 지나는 208번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푸른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넓고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병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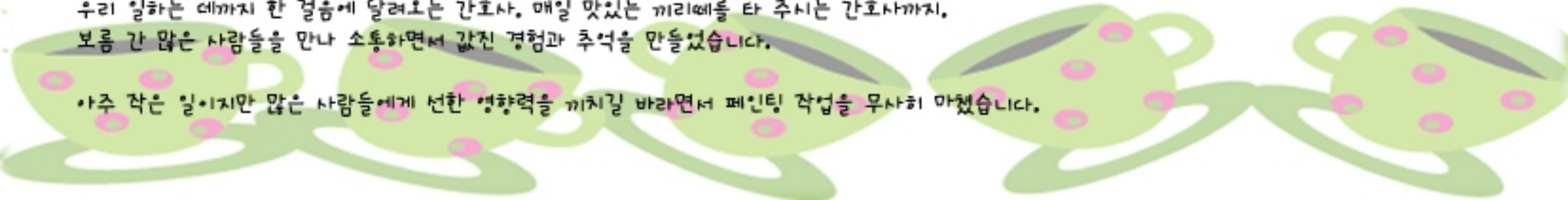
## 출발!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듣는 말! 아유보완(안녕하세요), 수보 우데싸나 웨와(좋은 아침입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아닌...수부우우우우입니다. 병원에 있는 모든 간호사들이 수분을 좋아해서 나머지 네 명은 안중에도 없고 수분만 찾습니다. 이렇게 환대받는 한 명과 홀대받는 네 명. 그래도 모두 신나게 기존에 칠해져 있던 페인트 벗기는 작업과 새로 페인트칠을 합니다. 처음에는 페인트 농도도 못 맞추는 어설픈 손놀림이었지만 정확히 보름 후, 다들 페인팅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그리는 십 년 묵은 채를 벗기듯, 손이 안 보일 만큼 빠른 빛의 속도로 페인팅을 합니다.

## 만남 사람들(간호사, 의사선생님, 타밀 아저씨)

타밀 아저씨: 깡 마르고 강한 인상의 아저씨가 처음엔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었는데 인상과는 너무 다른 인품!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주 친절하시며 무려 4개 국어를 하셔서 가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역해서 전해 줍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옷통 벗으시고 샤롱 한 번 동여 매시면 준비완료! 의사선생님: 절대 영어로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의사선생님! 우리에게 싱할라어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로 싱할라어만 쓰셨어요... 서로 통하지 않는 말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 의사선생님과 우리! 간호사: 한국의 개그우먼 김신영을 쫓 빼달아서 우리가 '김신영 간호사'라고 별명까지 붙여준 간호사와, 저~ 멀리서 일 하시다가도 수분 목소리만 들리면 우리 일하는 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는 간호사. 매일 맛있는 끼리예를 타 주시는 간호사까지. 보름 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값진 경험과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바라면서 페인팅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모라투와 Y 모금 음악회 'VOICES' 성공리에 마쳐



지난 10월 16일(토)에 콜롬보에서 'VOICES'라는 제목의 모금 음악회가 개최됐다. 모라투와 YMCA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보수가 진행 중인 YMCA 건물의 공사 완료를 위한 기금 마련 목적의 음악회였다.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 4기(이하 SL4)는 음악회의 진행 요원으로 참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도왔다. SL4의 주요한 임무는 공연 안내 책 판매였다. 한 권당 20루피였는데, 왕따시 이리저리 부지런히 다니며 객석을 휘어잡은 루와니(Ruwani, 한국 이름: 강민지)가 당당히 판매왕으로 등극했다. 루와니는 "호의적이었던 관객 덕분에 더 신나게 활동할 수 있었다. 좋은 뜻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음악회는 모라투와 콰이어가 이끌어 가고, 간간이 초대 손님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행사는 영어로 진행됐으며, 선보인 곡들도 대부분이 영어곡이라 싱할라 일색의 공연보다는 수월하게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 SL4를 비롯한 관객들은 귀에 익숙한 곡들은 따라 부르며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모라투와 YMCA 사무총장인 Sampath은 SL4에 대해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스리랑카에 온 이후 처음으로 참여한 큰 행사를 무사히 치러낸 그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Y'S MEN INTERNATIONAL 주최, 'Musical Memories X III' 열려

지난 10월 30일(토) 콜롬보에서 스리랑카 Y'S MEN INTERNATIONAL이 주최한 'Musical Memories X III'가 열렸다.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오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KB-YMCA 대학생해외봉사단 라온아띠 스리랑카 4기(이하 SL4)도 참석, 좋은 뜻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자선 모금을 위한 자리였던 만큼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00곡의 노래들을 음악밴드가 끊임없이 불렀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춤과 노래를 뽑내는 시간이 이어졌다. 입장권 상품 추천 시간에 SL4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진행자가 임의로 특정 조건을 말해 부합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루와니(Ruwani, 한국 이름: 강민지)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운전면허증 제일 먼저 보여주는 사람, XXL 크기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지나고 분홍색 신발을 신은 여성이 언급됐는데 마침 루와니가 신었던 운동화가 조건에 딱 맞았다. 그날 루와니는 무대로 달려가 참석자들에게 신발을 보여 주고, 기념 촬영까지 아무지게 하고 상품(브로치)을 수령해 위풍당당하게 자리로 돌아왔다.



모라투와 YMCA 원로 위원 니할(Nihal)은 "노래, 춤, 식사 등 SL4는 모든 면에서 매우 훌륭하다.(Everything is very good!)"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리랑카 Y'S MEN INTERNATIONAL에서는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해 어린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등 꾸준한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맨발의 자유로움이 있는 곳!

도전하지 않았다면, 느낄 수 없었다

## SL5 모집 공고

저희 스리랑카팀에서 신체건강! 사랑을 나눠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학생들을 찾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만약 세 가지 이상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망은 쓰리랑카!!!! 자~ 연필 준비하시고! 그럼 준비알~^^

- 맨발의 자유로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
- 칼라 뚱 파워!!! “ 새 뚱 사이로 막 다닐 수 있는 사람! ”
- 달리는 빠쓰(BUS) 잘 올라 탈 수 있는 사람!
-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아니죠! “ 손으로 밥을 잘 먹는 사람! ”
- 치아에 낀 망고의 살결을 이틀 이상 간직 할 수 있는 사람!

# BIG NEWS Sri Lanka

THUN WE POM ARE YUN SRI MM LANKA TI TEAM  
OOITU WJITITHN KOREA B& YOU MEN COA



안녕하세요~ 한 달만에 다시 뵙네요^^ 저 잊지 않으셨죠? 'SUPUN'이에요. 벌써 10월 보고서를 쓰게 되네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걸 느껴요. 저희 스리랑카팀의 현지 생활이 벌써 2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 한 달은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다면 2개월을 지낸 저의 느낌은 '익숙함'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다들 그러한가요? 그러던 중 첫 달에는 모든 게 새롭고 적응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지나쳤던 이야기들을 들려 드리려고 해요. 이제 스리랑카에 좀 살았다고 스리랑카 신문을 보고 있네요. 하하~^^ 물론 싱할라 신문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스리랑카 현지 소식인데요. 10월 한 달 동안 스리랑카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TOP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10월 'SUPUN'이 선정한 스리랑카 'BIG NEWS TOP5'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5<sup>th</sup>

## KOICA with Sri Lanka.

먼저 5위는 스리랑카 경제부 장관 Basil Rajapaksa가 10월 14일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방문 목적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와의 상호교류 증진이었습니다. 이날 KOICA 박대원 단장은 스리랑카의 경제, 교육 분야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박 단장은 "우리는 많은 전문가들을 스리랑카에 보낼 준비가 되었고, 10월 24일에 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라온아띠로서 누가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스리랑카를 위해 협력한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해 'KOICA' 관련 기사를 5위로 넣었습니다.



## More Humane than most humans.

자~ 4위입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구요?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

네?! 사진을 보시고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저도 처음엔 이 신문 1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기억이 나네요. 원숭이가 뭘 먹고 있는 사진 같았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TITLE처럼 정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나무에서 다람쥐가 떨어졌는데 원숭이가 군중 속에서 그 다람쥐를 구해내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이에요. 요즘 같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에 원숭이 한 마리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4<sup>th</sup>

# 3<sup>th</sup>



## No freedom of midea.

스리랑카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시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위 진압 과정에서 스리랑카의 대학생들이 이들을 방어하고 나서서 스리랑카에서는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 기사를 봤을때, 저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론인이 꿈이기 때문이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산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긴 언론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생각이 트인 대학생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나라 80년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그 시절을 겪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스리랑카에서 제3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있으면, 미래가 우리나라처럼 밝아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 Eradicate drug menace from country.

스리랑카에서 10월에 큰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행진은 마약, 담배, 술 근절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의 젊은이들이 마약과 담배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행진은 종교인 그리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COLOMBO STREET에서 근절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근절되어야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모라투와 YMCA의 ASHOKA 씨는 “지금 스리랑카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한다고, 스리랑카의 미래가 좀 걱정된다.”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저 역시 스리랑카가 마약 없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SMS alert at Korean exam”



두두둥~ 드디어 SUPUN이 뽑은 BEST OF BEST 기사를 발표합니다. ^^ 네, 10월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뉴스가 스리랑카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전 'SMS alert at Korean exam'을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나고요?! 얼마 전이었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일하러 가고 싶어하는 분들의 첫 번째 관문이죠. KOREAN EXAM.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만큼 중요한 시험입니다.

시험 응시 인원은.. 놀라지 마세요... 3만 하고도 5천 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험에 통과하는 인원은..

고작 5천 명. 정말 높은 경쟁률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기억나네요. 제가 한국에서 보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저 자신이 원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웬걸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었다니, 스리랑카에서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높은 경쟁률 때문인지 많은 시험 응시자들이 부정 행위를 하려다 사전검문에서 5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KOREAN EXAM 때문에 투입된 경찰 수만 700명. 이 인원으로도 얼마나 큰 시험이었나 짐작할 수 있을거예요. 부정행위 스타일도 다양각색이었습니다. 남자 응시자들은 구두 속에 휴대장치를 넣어 사용하려다 잡혔고, 여자 응시자들은 속옷안에 부정장치를 넣었다고 하네요. 이날 이 기사는 스리랑카 신문 그리고 영자 신문의 1면을 장식했습니다. 저희 라온아띠 스리랑카팀도 KOREAN CLASS를 하고 있는데요. RUWANI가 전담하고 있는 'KOREAN EXAM' 준비반에도 5명의 학생이 한국어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도 이 시험을 보았어요. 마지막 수업 때 화이팅이라는 말 밖에 해주지 못했지만, 전 그 분들이 59명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만큼 시험에서 실력 발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HIRUNI'S

## STYLE IN MORATUWA

Supun의 '맛을 찾아서'에 이은 2탄!

**Hiruni**의 Style in Moratuwa!

새까맣게 탄 얼굴에 지지분한 머리, 빨아도 티 안 나는 꼬질꼬질한 옷과 신발.

우리를 한 마디로 표현 한다면?



**'고락 계따이'(진짜 못생겼다^^;;.)**

“현지 가면 완전 연예인이예요!”라고 말했던 3기 선배의 말을 되새겨 보지만... 어느 행사장이 나 파티에 가서도 그 누구보다 폼 안 나는 스리랑카팀 다섯 명! 계따이(못생긴)에서 라싸나이(예쁜)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스리랑카팀의 스타일 변신 스토리. 지금부터 출발~



스리랑카 미녀로 거듭나기 위해 SL4 중에서 가장 먼저 미용실을 찾아 간 히루니. 우리 코디네이터인 '혈' 쌤빳의 추천으로 가게 된 Central Salon! Central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Barber Shop 스멜~! 머리를 자르던 히루니와 같이 구경 온 사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 한국의 블루클럽같은 느낌이 팍팍 들긴 했지만 곧 죽어도 미용실이라며 우기던 수훈의 강력한 권유로 들어가서 자르긴 했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처음엔 원하던 대로 머리카락을 잘라 주시던 아저씨.

# 그.러.나.

과감하게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하더니... 히루니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울었으며, 주인아저씨는 사과를 하시며 200루피(약 2000원)의 비용도 받지 않으셨다. 머리카락을 공짜로 자르고 싶다면?

## 울어라!! 공짜다!!





# Central 그 후..



< Central saloon >

며칠 후... 히루니에게 Central Salon을 추천해 준 쌤빳이 미안하다며 머리카락을 밀고 왔어요. 그리고 칠드런 클럽 애들에게 소문이 나서 그 후로 히루니의 별명은 Central Hair Salon이 되었다죠.



< Coordinator Sampath >



Central salon에서 머리카락을 자른 후 SAGARI와 함께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이에요. 제 앞 머리가 보이시나요?? 이 스타일이 바로 모라투와 스타일!! Central Salon에 다녀온 후 많은 Central 동기가 생겼답니다. Nipuni, Shashin, Yanus, ect. 저와 같은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외롭지 않아요!!!!!! ^^



< SAMAN Salon >

HIRUNI의 모라투와 헤어 스타일을 보고 모두들 식겁해서 Sagari한테 머리카락을 자른 두 남자. 결국 수훈은 긴 머리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미용실로 갔는데...잘 자르던 아저씨..

## 갑.자.기.



< 학용품 가위 >

학용품 가위를 들더니 프로페셔널하게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아무도 미용실을 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온 Supun의

## 한 마디!

“히루니의 최악의 상황을 봐서 그런지 나도 이상했지만 히루니를 보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 <Moratuwa RS.100 shop>

Every SAT 09:00~17:00

매주 토요일이면 모라투와 Y 근처에서 열리는 100루피 shop!!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Sampath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알게 된 shop이에요. 처음에 Sampath이 자신있게 싸고 좋은 곳이라길래 우리는 모두 프리마켓 같은 큰 시장을 기대했지만.....

**웬걸..** 어느 인상 좋은 아저씨가 혼자서 파는 Street shop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놀란 이유는?!! 우리는 연신 새 것이냐고 물었고, 옷에는 구멍이 나 있고, 단추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저씨는 계속 새 것이래요. ^^;;

새 것이면 어떻고 헌 것이면 어떠하리!!!!

**가격 만족! 품질 만족!**

우리는 꾸준히 100루피 샵을 찾고 많은 옷을 산다!!!

**But**

한국과는 많이 다른 Moratuwa Style!!!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우리가 찾은 스타일 고로, 우리는 꼬락~ 라싸나이!!!



< RS.100shop fashion >

# 랑카야, 놀자 !!

안녕하세요, SL4의 귀염둥이 막내 사그리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곳 날씨가 한여름이라서 그런지 한국 날씨도 한여름 같이 느껴지네요, 하하.

지난번 5기에게 쓰는 편지에 이어 이번에는 무엇을 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리랑카에서 저희들이 주로 즐기는 놀이와 스포츠를 각각 하나씩 알려 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에는 Children Club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 놀이를 하고, 한가한 주말에는 Youth Club 친구들과 이 스포츠를 즐기곤 합니다. 혹시 어떤 놀이와 스포츠인지 짐작 하시나요? 규칙만 알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리랑카의 놀이와 스포츠. 모두 즐길 준비 되셨죠? 그럼, 즐기러 GoGo~!!

먼저 저희가 주말에 가끔 즐기는 스포츠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야구와도 비슷한 이 스포츠. 대부분의 스리랑카 청년들이 주말이나 빨간날(스리랑카는 한 달에 한 두 번 기념일이라는 이유로 섰니다 ^^)에 즐기는 이것은 **크리켓**입니다. 한 학교당 한 개 이상의 크리켓팀이 있을 정도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광고 모델들은 대부분이 크리켓 선수라는 사실!! 저도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ri Lanka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 크리켓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해요.

크리켓의 종주국은 **영국**이며, 13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처음에는 플레이어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게임 규칙을 만들어 18세기초부터는 정식 스포츠로 즐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켓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 How to play

1. 한 팀당 11명 씩 2개조로 나눈다. - 공격측과 수비측을 정한다.

2. 수비측 투수는 **배트맨**의 바로 앞에서 바운드 할 듯이 볼을 던지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던지기가 아니라 팔을 완전히 뻗은 채로 최상위에서 밀어 내듯이 볼을 던진다. (야구하듯이 공을 최대한 멀리 던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배트맨이 볼을 치면 배트맨과 반대의 **위킷**에 있는 주자도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여, 도중에 엇갈려 각각 반대쪽의 위킷에 배트를 터치해 되풀이하고, 볼이 위킷에 되돌아 오기 전에 이것을 몇번이고 반복하면서 득점을 올린다. (배트맨이 공을 치면 공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왕복으로 달려서 점수를 많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 사람이 배트맨

요게 위킷

크리켓...어떠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앉아서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희 팀원들도 시간 날 때마다 즐겨하는 놀이인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놀이, 바로 캐럼입니다. 한 개의 공으로 다른 공을 치는 당구의 유명세에 힘 입어 영어 관용어가 되어 캐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알까기와도 비슷하지만, 판 모서리에 구멍이 있어서 그곳에 공을 넣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길지 걱정 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스리랑카의 전통 놀이인 캐럼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설마 크리켓에 이어서 캐럼도 어렵다고 하시는건 아니겠죠??



# How to play

1. 단식 혹은 복식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1:1 혹은 2:2 로 팀을 나눈다 )
2. 먼저 선공할 사람을 정한다.( 대부분 한국에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죠 ^^ )
3. 보드면에 파우더를 적당히 뿌리고 게임을 시작한다.( 캐럼맨이 잘 미끄러지도록 )
4. 선공할 선수가 캐럼맨을 캐럼보드 중앙에 정렬하게 하고 게임을 시작한다.
5. 선공할 선수는 백색 캐럼맨이 자기 캐럼맨이 되고 상대선수는 검정색 캐럼맨이 된다.
6. 순서를 정했으면 한 번씩 돌아가면서 흰색공을 치며 캐럼보드 모서리 아래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골인시킨다.

스리랑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놀이 & 스포츠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원래 놀이나 스포츠 경기는 직접 해보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 잘 아시죠? 흠...그래도 어렵다구요?

그럼 재미있는 놀이와 스포츠가 있는 이곳, 스리랑카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아!! 모라투와 YMCA로 오시면 더욱 환영인 거 아시죠? 하하.

이번 호에는 재미위주로 넣어봤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처음 스리랑카에 왔을 때, 자유시간 없이 바쁠 줄 알았는데 조금씩 적응을 하다 보니 자유시간이 늘어나더군요;; 좋은 친구들이 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이를 통해 간단한 싱할라어와 잘 하지 못하는 영어 그리고 손짓, 발짓, 몸짓을 사용하다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었네요.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말이 아닌 방법으로 소통하는 법. 참 쉽죠잉~? 이러한 방법으로 스리랑카에 온 지 두 달 만에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

다음 호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 뵙도록 할게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이곳에서는 한국 소식을 자주 접하기가 힘듭니다. 흑흑.(편지 많이 보내 주세요!)

한국은 새벽에 일음이 일 정도로 춥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구요.

그럼 지금까지 매력적인 나라, 스리랑카에서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막내였습니다 ^^ 안녕영 ~

RaAtt SL4:1

# 틀린 그림 찾고, 선물 받고!

뽕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일석이조, 누워서 떡먹기 유우~

\*정답을 모두 찾아서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 주시면 선착순 1명을 선발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1년 2월 7일 이후에 일괄 배 송합니다!! (9월호 퀴즈 정답은 왜 아무도 안 보내 주셨나요... 아직도 9월 퀴즈 정답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체 제작 100%!!



SL4 주소 68, New Galle Road, Moratuwa, Sri Lanka Moratuwa YMCA - RaonAtt



에스엘4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 마침